

한빛원전 폐기물 해상운송 안전조치 미흡

원안위 “비상구역 13만 인구 대피 가능성 전무”

도로망 정비·대피시설 및 의료기관 확충 시급

한빛원전에서 사고 발생시 방사선계획 구역 내 주민 전체를 소개하거나 안전 시설로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포화상태에 달한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이송 문제의 경우 어떤 동의를 위한 해상 전문가에 의한 항로 안전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기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지만 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 때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역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원전 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요령’에서 “비상구역 전체 인구가 소개(疏開)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비상계획구역 전체 인구 수용시설의 지정·관리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원전의 경우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8~10km에서 28~30km로 확대되고 인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 때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역

수도 1만8846명에서 13만7326명으로 늘어났지만, 유사시 이들 전체를 대피시키거나 수용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리 원전을 빼고는 낙후지역이어서 도로망이 취약하고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유사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소개나 응급 후송 등을 위한 도로망 정비와 대피시설 및 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

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 해상 운송의 전제 조건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의 저장률은 98.5%로 연내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문가에 의한 항로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어떤 현재 해상 이송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 4곳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부지 한 곳에 원자로 여러 개가 밀집된 ‘다수호기’ 원전이지만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



가을 산악사고 구조훈련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상연)는 지난 10일 제석산에서 가을철 산악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 훈련은 고립 및 낙오자 구조훈련, 급경사·계곡 도하 및 이승훈련, 부상자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훈련 등 실천처럼 진행됐다. <광주남부소방서 제공>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신변보호용품 등이 대상이다. 개별 제품을 담은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다.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과일 선물 등 1차 식품의 포장에 피지·리본 등 부속 포장재의 사용 여부, 골판지 포장 상자의 압축강도 등도 소비자와 함께 조사한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김형호기자 khh@

대한항공 중국사막 나무심기 봉사

대한항공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庫布齊) 사막에서 나무심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는 대한항공의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나무심기 봉사활동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년째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사 기간을 포함해 올해 해 동안 총 8만여 그루의 나무를 이곳에 심을 예정이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500km 떨어진 쿠부치 사막의 면적

은 1만6100㎢로 세계에서 9번째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래 바람은 우리나라 황사의 40%를 차지한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특히 이 지역은 무분별한 벌목과 방목으로 매년 서울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이 사막화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꾸준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으로 이 지역의 사막화 방지뿐 아니라 황사를 막는 방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 10명 중 9명 “日수산물 규제해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 수준인 69.6%였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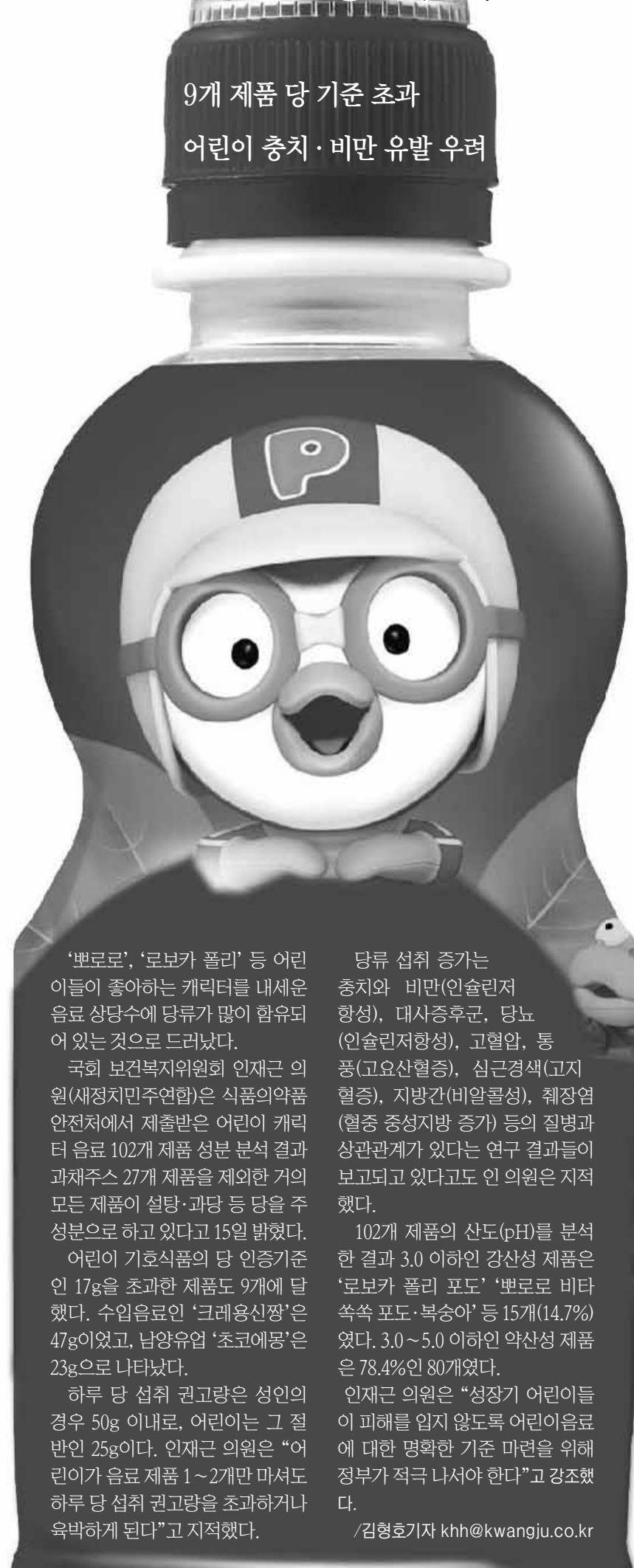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인 58.8%가 수산물 구입 빈도를 줄였으며 이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5.6%였다. 수산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42.1%는 국내산만 구입했으며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은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한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수준이 거의 불검출 수준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68.8%)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정보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1.1%였고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도 12.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뽀로로 음료’ 설탕 덩어리

9개 제품 당 기준 초과 어린이 충치·비만 유발 우려



‘뽀로로’, ‘로보카 폴리’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내세운 음료 상당수에 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캐릭터 음료 102개 제품 성분 분석 결과 과채주스 27개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이 설탕·과당 등 당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 인증기준인 17g을 초과한 제품도 9개에 달했다. 수입음료인 ‘크레용싱’은 47g이었고, 남양유업 ‘초코에몽’은 23g으로 나타났다.

하루 당 섭취 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50g 이내로, 어린이는 그 절반인 25g이다.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가 음료 제품 1~2개만 마셔도 하루 당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거나 육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당류 섭취 증가는 충치와 비만(인슐린저항성), 대사증후군, 당뇨병(인슐린저항성), 고혈압, 동맥경화(고지혈증), 심근경색(고지혈증), 지방간(비알콜성), 췌장염(혈중 췌장지방 증가) 등의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102개 제품의 산도(pH)를 분석한 결과 3.0 이하인 강산성 제품은 ‘로보카 폴리 포도’, ‘뽀로로 비타속속 포도·복숭아’ 등 15개(14.7%)였다. 3.0~5.0 이하인 약산성 제품은 78.4%인 80개였다.

인재근 의원은 “성장이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린이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영산중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암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용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6천만
- 수원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면,모아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삼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침단지구 월계동 상가(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 전남장성 시골주택 매매 장성캠 2분! 장성읍 8분! (토지 160평) → 매가 4천5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평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평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평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평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6평)감평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178평)감평가16억2천→최저가9억
- 북구신원동(토32평,건48평)감평가4억2천→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 (토3평,건113평) 감평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평가4억→최저가2dr8cjs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평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건물)

-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평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평가4억9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평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평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평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평가 2억2천3천→최저가 22억3천
- 광산구 쌍암동 (정례식장) (토 516평,건920평) 감평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평가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평가 15억→최저가 8억4천
-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평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062-382-5500/010-6832-9700

경매 무료 공개강좌

(서울 유명 교수 초빙)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기본 이론위주)
☆ 1회 무료 모의수강후 등록가능

경매 실전 교육

실전교육듣고 바로 수익 창출 가능

매주 (수요일,토요일)
오전 11시~1시
오후 7시~8시30분
(입찰,임대,매매~개발기획까지)